

“우리가 5월 직통” 각 당 광주 집결

5·18 2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통합신당 등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 각 당 지도부는 일제히 광주에 집결, 5·18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5·18 정신과 호남민심의 대변자임을 강조하면서 통합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배제론'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5·18 기념일인 18일 강제집 대표 등 당직자들이 기념식에 참석한다.

우리당 “박상천 배제론은 新색깔론”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최고위원단은 17일 오후 광주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밝힌 뒤 광주·전남지역 핵심 당원 50여명과 함께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광주 기자간담회에

서 “누구를 배제해야 한다고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말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벽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색깔론에 시달렸는데 배제론은 신판 색깔론 아니냐는 당내의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5·18희생자 대변 정당될 것”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상천 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최인기 이낙연 고재득 이철 부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5·18 국립묘지에서 자체 5·18 기념식을 가진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당원간담회를 개최했다.

들의 대변 정당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앞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와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당은 왜 자기가 통합 않느냐고 연일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당이 민주당을 찍사랑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통합신당 “근혹스러운 만남 없어야”

중도개혁 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는 송일·조배숙·조일현 최고위원, 최용규 원내대표, 양형일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함께 18일 오전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지역 창당 주요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에서 “이슈화해 나오는 ‘여우와 학’ 얘기처럼 서로 초대하고 국 등을 접시와 호리병에 담아주면서 서로를 근혹스럽게 하는 만남은 만나지 않은 것만 못한 만남이란 생각한다”고 우리당과 민주당 지도부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등 당직자들이 17일 낮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상). 민주당 박상천 대표 등 당직자들이 이날 오후 5·18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중).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권영길, 노회찬 의원이 이날 5·18 묘지를 방문, 참배했다(하).

민노당 “5월 항쟁은 노동자·서민 것”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이날 오후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 의원 등 대선 주자 3명과 함께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한 5월 정신계승으로 한미 FTA 저지

와 대선 승리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5월 항쟁의 가치와 유산은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땅을 갈아 일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親盧 측근 정국 인식 ‘온도차’

이광재, 유시민 당 복귀·대선후보 부정적 안희정 “당 결정 따라 질서있게 움직여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유시민 보건복지장관의 당 복귀 및 대선 출마, 친노그룹 독자세력화 등 대선정국의 이슈를 놓고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유 장관이 대선후보로 나서는 문제를 놓고 노 대통령의 대표적 두 측근인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과 안희정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의 뚜렷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이광재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친노의원 모임인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과 안 위원이

장이 이끄는 참정포럼 및 친 유시민 성향의 구 참정연 멤버들의 생각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전자는 유시민 대선후보론에 부정적 기류가 우세하지만, 후자는 우호적인 것.

이광재 의원은 14일 “노 대통령은 유 장관이 대선후보로 나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면서 “유 장관은 항상 대통령 뜻을 따르고 존중하겠다고 했으니가 따르지 않겠느냐”며 유 장관의 내각 잔류 및 대선 불출마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안희정 위원장은 17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공개편지를 통해 대선주자 문제에 대해 제3자를 통해 대선 전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말하고 이 의원이 유 장관의 대선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당의 결정에 따라 질서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대선후보론”을 놓고 친노그룹 내부의 미묘한 시각차가 엿보이자 청와대는 “근본적으로 노 대통령의 사고체계에는 ‘대통령이 누구를 의중에 두고 뜻대로 만들어 간다’는 식의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심(盧心) 논란”을 차단했다.

“8·15前 남북정상회담 개최해야”

DJ·장영달·이해찬 등 범여권 인사들 잇단 주장

8·15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범여권 주요 인사들의 입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8·15전 남북정상회담 개최론은 17일 끝났던 남북철도가 56년만에 연결된 것을 계기로 남북간 교류·협력 분위기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어 조명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8·15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

며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통일열차가 남북을 가로질러 가는 마당에 남북정상회담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8·15 이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독일 외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방식의 정상회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과 연계하거나 병행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성추문’ 최연희 면담 논란

제이유 금융수수 의혹 보도 염동연, 한국일보 고소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17일 자신이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 부터 금융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 발행·편집인과 편집국장, 취재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일보의 제이유 사건 관련 지난 16일자 기사는 사실 무근이며, 이 기사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성추문’ 최연희 면담 논란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강원지역 방문 중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연희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시장은 16일 저녁 강원도 동해시의 한 호텔에서 최 의원과 약 20분간 배석자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 의원이 성추문으로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한 뒤 동해·삼척 지역에서 여전히 조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당내 경선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시장은 최 의원의 면담이 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잠깐 만났다. 아직 (이 지역 당협) 위원장이니까”라며 직접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한나라당을 탈당, 위원장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마침 지역구에 와 있었는데 이 전 시장 측에서 만나자는 요청이 와서 잠깐 만났다. 도와 달라고 했지만 그럴 입장이 아님을 설명했을 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무장학생과 경찰 충돌 없었다”

정동영, 80년 광주취재 보도되지 못한 리포트 공개

정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www.cdy21.net)를 통해 공개한 전화 리포트에는 공수부대가 물러간 뒤 시민군 손으로 넘어온 광주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전화 인터뷰에서 정 의원은 “어제까지는 일단은 학생들이 장악한 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전혀 불안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밤에는 물론 총성 때문에 공포감이 고 다녔습니다”라고 평은했던 광주 시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 의원은 또 별도의 리포트에서 “무장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은 없었고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적대감도 전혀 없는 그런 환경”이라며 신군부의 ‘무법천지’ 주장을 일축했다.

전화 인터뷰와 리포트의 육성과 전문은 정동영 전 의장의 홈페이지(www.cdy21.net)에 실려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6월 1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완제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국비무료모집

과정	교육내용
기업사무자동화인력양성	윈도우XP, 워드,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영세자영업자 교육(07/6/1~3개월)	다양한 기능 습득(시간: 9:10-13:00)

*영세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모형상생가, 학습지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로 전액 국비교육, 교재무료제공, 수당지급.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자과정(교육기간)	교육내용(교육시간)
주택관리사 (월-토)	교육기간: 6/4-7/31 (월-금: 19:00-22:30, 토:15:00-18:30)
공인중개사 (월-토)	교육기간: 7/2-8/31 (월-금: 19:00-22:30, 토:15:00-18:3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일)	교육기간: 7/7-8/26 (토14:00-20:00, 일10:00-17:00)

개강 사무자동화 5/16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 대비

기타 사항

- 고용보완기간 직장의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훈련수강신청서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저지직장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강의 DVD 녹화대여로 반복학습

버스노선: 전남여고교문3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예술의거리입구, 풍산70, 금남56, 대촌70, 대촌170, 문화전당역(구 도청)주진월07, 침전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암61, 문종80, 두암82, 518, 1187

☎ 노동부직접능력개발훈련시설 ☎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232-1088

*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김재규 경찰학원 3층 * http://www.hdedu.co.kr

“속보” 전남 9급 교육행정직 하반기 시행확정 채용인원 000명=

7.9 급 공무원 대비

행정직	교육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복합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토목직	건축직
-----	-----	-----	-----	-----	-----	-----	-----	-----	-----	-----	-----	-----

= 서울 7월 8일 • 전남 6월 23일 • 전북 9월 8일 시행 =

시험 문제풀이 6월 1개월 완성

개강 6월 1주(총합)반 모집 (현재 상담 접수중)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www.mdgosi.co.kr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면학분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 기회!

개강 6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후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대비반
- 약대/한의대/수의대편입대비반
- 08년 편입시험 대비반(일반편입/학사편입)

개강 6월 1일

★ 4주전반 맞춤이론 강좌: 기초-이론-적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 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jkimyoung.co.kr

김영(PMS)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